

저자강연회로 인문학 저변 넓힌다

인문학 분야 중심으로 활발히 열려...

독서인구 저변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저자 강연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의 각 대형서점들은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저자 사인회에서 탈피, 다양한 형식의 저자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독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또한 문예물 위주로 이뤄지던 저자강연에서 벗어나 인문학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서점은 여전히 저자강연회의 불모지다. 독자들의 반응도 미미할 뿐더러 저자강연회를 열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대형서점들이 저자강연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어 출판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저자강연회는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 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저자 사인회'나 '저자와의 대화'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또한 과거의 문예물 위주로 치러지던 행사와는 달리 인문학 중심으로 저자강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인문학 중심으로 활발히 열려

저자강연회를 가장 활발히 열고 있는 서점은 영풍문고다. 영풍문고는 한달 평균 10회 정도 저자강연회를 개최한다. 실용서에서 인문학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 영풍문고측은 저자강연회를 독자서비스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서점측에도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서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나 대학원생 같은 고급 독자를 서점으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풍문고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인문학 데이트'와 '책세상문고' 저자강연회'를 각각 열고 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목요일에 열리는 '인문학 데이트'는 사계절 출판사와 함께 기획한 강연회. 평일에 열리는 강의인데도 1백여 좌석이 가득찬다. '책세상문고' 저자강연회'도 마찬가지다. 저자강연회에 참여하는

독자층은 넥타이를 맨 직장인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하다.

책세상의 '책세상문고' 저자강연회' 담당자인 김은주씨는 저자강연회 기획 당시부터 저자와 독자의 토론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책세상 문고> 자체가 독자와의 활발한 토론을 목적으로 기획된 시리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독자와 저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독자와 저자가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자강연회는 그러기에 더 없이 좋은 자리다. 사인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차창롱 인문담당은 "독자서비스 차원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지만, 인문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인문학 붐을 한 번 일으켜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면서, 한편으로는 "저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풍문고와는 그 형식이 다르지만 교보문고 역시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저자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교보교양강좌'는 한달에 한 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 인터넷으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교보측은 저자강연회를 좀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강좌를 열었다고 설명한다. 대관료와 저자 강연료는 교보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저자 강연회의 또 다른 특징은 인문학뿐만 아

니라 경제·경영서를 포함한 실용서 저자들의 강의도 빈번하다는 것. 영풍문고의 경우 저자강연회의 50%정도를 경제·경영서를 비롯한 실용서들이 차지하고 있다. IMF 이후 실용서와 경제·경영서의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서점측의 설명이다.

지방서점의 저자강연회는 급격히 줄어

서울의 대형서점과는 달리 지방서점은 저자강연회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1~2회 정도 열리던 저자강연회를 올해 전혀 열지 못하는 서점이 대반이다. 광주 충장서점의 문도선 과장은 지방서점의 경우 저자 강연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지방 서점의 경우 자체 이벤트 홀이 없는데다 독자들의 호응도 미미한 편이다.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사인회를 열어도 100명 남짓 모이는 수준이다. 저자강연회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 이벤트 홀에서 가끔 베스트셀러 저자의 사인회가 열리는데 책만 납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의 제일서적은 서점 여건상 올해 이벤트 홀을 없앴다. 불황으로 서점 운영이 극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방서점에서 열리는 저자강연회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규모나 연륜에서 서울대형서점에 뒤지지 않는 부산의 영광도서가 대표적인 경우. 영광도서는 매달 유명 저자를 초대해 '영광독서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달로 67회를 맞았다. 매회 적게는 1백명에서 많게는 3백명까지 모이는 이 행사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자리잡았다.

‘영광독서토론회’는 문예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워낙 명성이 자자한 덕에 대부분 출판사측에서 강연회를 의뢰한다. 영광도서측은 대외홍보만 담당한다. 영광도서의 김교섭 과장은 “저자 강연회가 서점의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영광도서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다른 서점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영광도서의 베스트셀러에는 항상 본격문예물이 3~4종 들어가 있다. 최근의 본격 문학시장 위축에 비춰볼 때 이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해 문학동네 임대주 영업부장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저자강연회의 효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마련이다. 독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저자강연회가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저자강연회를 시도하는 출판사들

‘정글북’은 일산에 사는 유명 작가들을 초청, ‘우리마을 우리작가’ 저자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순원, 윤대녕 등 일산지역에 사는 작가들을 릴레이식으로 초대하는데,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글북 윤선영 대표는 저자 강연회를 “한 차원 높은 홍보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일산의 대형서점은 모두 무너졌다. 일산의 문화 인프라는 극히 취약한 형편이다. 서점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점뿐만 아니라 출판사들도 다양한 형식의 저자강연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전처럼 저자가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형식의 저자강연회는 독자들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암사의 ‘현암 자연학교’가 새로운 형식의 강연회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이 프로그램은 현암사에서 책을 낸 필자들이 강사 겸 안내인으로 참여한다. 꽃, 동식물, 천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현장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강연한다. 책에 대한 강의와 생생한 현장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



최근 대형서점에서 열리고 있는 저자강연회는 과거의 ‘저자 사인회’나 ‘저자와의 대화’와는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된다. 저자와 독자의 이벤트성 만남이 아니라 한권의 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점이 바로 그 차이이다. 사진은 영종문고에서 열린 ‘책세상문고’ 저자강연회 장면.

은 1박 2일간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참가비를 내야 하지만 반응은 좋은 편이다.

최근에는 재즈 이야기를 담은 《이상한 과일》을 펴낸 김진목씨가 영종문고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는 지은이의 해설과 함께 재즈 감상시간도 마련했다. 현암사의 정착임 대리는 “책의 특성에 맞춰 저자강연회를 기획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요즘 독자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원한다. 저자 강연회도 독자들의 구미에 맞게 다양하게 꾸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암사는 최근 사육을 증축하면서 30명 정도의 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앞으로 현암사는 이 세미나실을 활용해 좀더 깊이 있는 저자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책세상은 내년부터 《책세상 문고》 저자강연회를 지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부를 통해 지방서점에서도 저자강연회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지방에는 독자층이 얇고 서점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사계절 출판사 역시 지방 강연을 계획중이다. 사계절 출판사는 대학 위주로 저자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인문학 저자 강연회는 일반 서점보다는 대학에서 훨씬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푸른숲도 같은 생각이다. 선완규 인문팀장은 “독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강연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에는 저자강연회 전국 투어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깊이 있는 강연으로 자리잡지는 못해

그러나 저자강연회의 내용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인문학의 경우, 저자강연회에 참석하는 독자들이 일반인에서 전문가까지 워낙 다

양한데, 대부분의 강의는 일반독자들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일부 저자들은 저자강연회를 유료화하는 것이 저자강연회의 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강연회를 유료화할 경우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좀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고 독자들의 집중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창룡 팀장은 “저자강연회는 일반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 여는 것이 아니다”며 유료화에 유보적인 견해를 털어냈다. 책세상의 김은주씨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는 “저자강연회는 인문학이 독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문가들을 위한 강의는 대학과 학회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강연회는 출판계와 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독자는 저자를 직접 만나 책에 대한 평소의 궁금증을 풀 수 있고 저자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서점은 이미지 제고와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출판사는 책을 홍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석사조’인 셈이다.

하지만 저자강연회의 활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자강연회가 계속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국내 저자의 좋은 책이 많이 출간돼야 하는데, 최근에 출간된 주목할 만한 책이 대부분 번역서기 때문이다. - 최갑수 기자